

# 한국인의 심정심리(心情心理) :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최 상 진 · 김 기 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심정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며, 인간관계 특히 우리성-정 관계에서 심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밝히고, 한국인의 심정 Discourse의 양식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더불어 논하였다. 한국인의 역사-문화적 삶 속에서 심정이라는 현상과 개념은 구성되고 실체화한 실재계(實在界)로서 한국인의 일상적 사회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현실적으로 생생한 작용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현상학적 심리경험계이다.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나 친한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긴밀한 동료관계와 같은 우리성 인간관계가 전제될 때 우리성 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 형태는 우리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들간의 인간관계 형태와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최상진, 1997, 1993; 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최상진, 김정운, 1998; 최상진, 박수현, 1990; Choi, 1998; Choi & Choi, 1994; Choi & Kim, 1999a). 후자의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합리성의 논리', '이성의 논리', '사회공공규범의 논리', '이해관계적 타산의 논리', '사회적 정의 및 형평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관계 맺음의 양식이라면(Danziger, 1997; Giddens, 1991 참조), 전자의 인간관계에서는 '우리편의 식논리', 'passion의 감정논리', '사적인 정(情)·의리(義理) 논리', '이해관계 비타산의 논리', '우리편정의 및 우리편 호혜(互惠)의 논리'가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조장되는 관계맺음의 양식이다(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최상진, 유승엽, 1996; Choi & Kim, 1999a). 따라서 한국인들은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할 때 상대가 우리편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편 밖

에 위치하는 다른 사람 즉 '남' 인가를 분별하여 대인관계적 상호작용 행동을 차별화한다.

한국인의 우리편 인간관계는 정(情)이라는 한국적 대인관계심리와 행위규범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정(情)의 인간관계와 관계심리 원형은 한 이불을 덮고, 한 술밥을 먹는 가족관계와 가족심리이다(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 최상진, 이장주, 1999; 최상진, 유승엽, 1995; 최상진, 최수향, 1990; Choi, 1998; Choi, Kim, & Kim, 1999). 한국의 가족은 역사-문화적으로 당위적 공동운명체로서 '하나됨(eness)', '동질성(sameness)', '자기희생', '상호부조', '사적관계 맺음', '정과 인정(人情)'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인의 우리성은 이러한 한국인의 가족관계심리가 사회적 관계속에 이전된 형태로 구성된 아류적(亞流的) 가족관계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아류적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과 개념은 정이다. 정(情)의 핵심개념은 '상대를 가족처럼 아껴주는 마음'이다. 여기서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극히 한국적인 표현으로,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 쏟기', '상대의 어려움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줌', '상대의 마음상태에 대한 공감 및 지원' 등을 포괄하는 '대가족관계(對家族關係) 마음'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한국인의 우리성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개념은 '마음'이다. 앞의 '아껴주는 마음', '관심 쏟기', '어려움의 이해', '상대마음에 대한 공감' 등과 같은 말에서 이미 함축된 것처럼 한국인의 우리성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맺어지는 관계'를 뜻한다. 흔히 가까운 친구를 '배짱이 맞는 친구(여기서 배짱은 마음을 뜻함)', '마음이 통하는 친구',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 '마음으로 맺어진 친구'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우리성관계에서 상대가 자신에 대해 행한 행동을 그 자체로 평가

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행동에 실려있는 마음씨주기의 크기나 양으로 전환해석하여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의 우리성 대인관계의 주화제는 행위교환이라기 보다는 '마음주고받기'라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에 관여되는 한국인의 folk psychology적 대화나 narration에는 직접 또는 함축적으로 '마음'을 준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도 말라", "내 마음에 못박지 마라", "마음으로 아껴주는 친구",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마음이 고와야지" 등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속에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자문화권인 한국의 국어사전을 보면, 마음을 뜻하는 '심(心)'자가 들어가는 단어(예를 들어, 감심(感心), 단심(丹心), 만심(慢心), 심리(心理), 심성(心性) 등)와 심(心)자가 포함된 한자(예를 들어, 인(忍), 지(志), 염(念), 약(愕) 등)의 수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이는 한국인에게 있어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며 개념일 뿐 아니라 마음에 대한 세마가 매우 분화되고 발달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인의 자기(自己, self)는 자신을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추론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b).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대인관계심리나 사회심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행위의 기저에 깔린 마음을 중심으로 사회적 행동이 구성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행동이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마음에 대한 해석이 행위의 중요한 주결정 변인이나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때 대인관계 행동이나 사회적 행동의 의미나 해석은 항상 precariousness의 위험성을 안게 된다. 마음은 직접 볼 수도 없고 만

질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은 상대방은 물론 당사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밖으로 나타난 행위와 그 행위가 나타난 정황으로 미루어 자신이나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는 도식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이 모든 마음을 추론해 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발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음의 해독은 많은 경우 문제된 사안별로 스스로 추론해야 하는 주관적 과제로 남게 된다. 특히 그리고 또한 갈등적 상황이나 오해의 여지가 이미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행위를 마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 행위 당사자와 해석자 간에 해석의 불일치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상황이나 본래의 진실한 마음이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상대의 마음을 해야 하는데 사용되는 단서가 심정(心情, Shimcheong; activated inner-mind)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Choi & Kim, C., 1997; Choi & Kim, 1999a; 1999b).

### 심정(心情)의 성격과 발동과정

올림픽에서 판정패를 당한 한 한국인 권투선수가 심판들의 판정에 불복하여 게임이 끝난 후에 링을 내려오지 않고 링 바닥에 주저앉아 항의를 하는 바람에 다음 게임이 지연된 바 있다. 이러한 한국 권투선수의 행동을 놓고 서구의 언론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글을 쓴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언론에 나타난 기사의 머리말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오죽이나 억울한 판정이었기에 링을 내려오지 못했겠는가’ 또는 ‘그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말로 한국 권투선수를 동정하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서구의 언론은 규칙을 중심으로 한 정당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과 한국인들은 이에 덧붙여 부당한 판정에서 오는 당사자 즉 그 권투선수의 ‘억울한 심정’을 그러한 행동에 대한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중요한 평가의 차원으로 개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대인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간의 대인관계에서 ‘억울하다’거나, ‘섭섭하다’, ‘야속하다’, ‘너무한다’ 또는 ‘지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등과 같은 말을 자주한다(손영미, 최상진, 1999; 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최상진, 유승엽, 1996; Choi & Kim, 1999a; 1999b). 이러한 말들은 모두 대인관계에 관여된 당사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내적 경험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한국인들은 가까운 사람들간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상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적 경험을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형태로 공감하고 이를 배려하여 행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우리성-정관계와 같은 친밀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적 경험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치환하여 공경험(共經驗, co-experience)하는 일에 민감하며 습관화되어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인들은 상대의 경험을 당사자적(제3자적이 아닌) 입장에서 주관화(subjectify)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1997; Choi, 1998).

이 때 상대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의 사적인 심리경험을 한국인들은 ‘심정(心情)’이라 칭한다. 한국의 신문이나 TV의 연속극을 보면, 심정이란 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권좌(權座)에 있던 사람들이 불행한 사건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심정을 언론기사의 제목으로 끌

어내어 '김영삼 전대통령의 심정', '전두환 전대통령의 심정', '노태우 전대통령의 심정', 심지어는 이들의 부인들의 심정까지도 대중매체의 기사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정 표현이나 심정담론은 보통 사회-합리적 사고나 이성적 담론이 요구되는 공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나, 가까운 우리성-정관계와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규범적인 형태의 상호작용 모형이다.

심정은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일어남'을 뜻하는 '정(情)'의 합성어로서 '마음이 일어난 상태와 상황'(신국어 대사전, 1974)을 말한다. 즉 심정은 '움직인 마음과 움직인 마음의 정황'을 뜻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1999b). 한국어에서 마음이란 말은 영어의 mind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영어의 mind는 reason과 passion을 모두 포괄하나(The Oxford Dictionary 2nd Ed.), 한국말의 마음은 주로 passion과 관계가 많다. 즉 마음은 감정, 기분, 의지, 관심, 의향 등을 포함하는 intentionality(지향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thinking을 뜻하는 '생각'과는 구분된다. 마음의 의미는 마음이란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두드러진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안 좋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안놓인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걸린다', '마음이 내킨다', '마음에도 없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먹다' 등과 같은 마음이라는 말의 사용맥락에서 보면 마음이 지향성을 갖는 심리적 개념으로 정서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따라서 마음은 '~에 대하여(about)' 일어나는 것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물건, 사건, 상황 또는 추상적인 개념 등이 될 수 있다. 심정(心情)이란 현상과 말은 보통 우리성 집단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간의

관계속에서 상대의 특정한 행동이나 상대와 연관해서 작위된 특정한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나거나 사용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심정을 표현하는 말 중에 자주 사용하는 심정표현언어를 보면, '섭섭한 심정', '야속한 심정',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 '죽고싶은 심정', '서러운 심정', '울고 싶은 심정' 등이 있다(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1999b). 이러한 심정표현언어의 기저를 보면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는 사람 속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거나, 원하거나,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욕구나 동기가 전제되어 있다. 보통 이러한 욕구나 동기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과되지 않을 때 심정은 발동한다. 즉 마음이 동요된다. 반대로, 원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과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결과를 낳은 상대의 행동에 기대이상의 좋은 마음이 실려 있을 때에도 '눈물겹도록 고마운 심정'과 같은 심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심정이 보편적이다(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대인관계속에서 상대에 대해 갖게 되는 다양한 감정이나 마음은 모두 심정으로 발동되고 경험될 수 있다(Gergen, 1997 참조). 예컨대, 정(情)의 심정, 한(恨)의 심정, 사랑의 심정, 증오(憎惡)의 심정, 부러운 심정 등 대부분의 감정은 심정의 형태로 전환되고 체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정은 발동된 상태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그러나 심정이란 말속에는 발동된 감정이라는 측면이외에 다음과 같은 심정의 특수한 성격이 문화적으로 첨가되어 있다. 첫째, 심정이란 말속에는 발동된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자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즉 여기에는 발동된 마음과 발동된 마음을 읽는 의식의 마음이 함께 관여된다. 의식

의 마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느끼고 감지하는 마음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둘째, 심정이란 말속에는 나쁜 감정 또는 좋은 감정과 같은 평가적 감정과 더불어 그러한 감정이 발동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심리과정적 설명이 적어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여기서 심리과정적 설명은 예컨대 자신이 상대의 자신에 대한 특정한 말 때문에 섭섭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다면 왜 그러한 심정이 느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심리과정적 설명을 자기의 내적 마음 과정에 대한 내관자(內觀者, introspector)적 입장에서 narration하는 형태를 갖는다(Choi & Kim, 1999a). 위에서 제시된 심정의 성격 및 속성에 대한 설명(elaboration)을 바탕으로, 심정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심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심정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느끼는 마음과 느껴진 마음의 내용'으로 정의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이와 같은 심정과정설명양식은 사물(事物)과 사리(事理)에 대한 합리적 설명양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전자는 심정논리(心情論理)로 후자는 사리논리(事理論理)로 명명된다(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최상진, 유승엽, 1996; Choi, 1998; Choi & Kim, 1999a, 표 1 참조).

표 1. 심정논리와 사리논리

심 정 논 리	사 리 논 리
우리성 논리	개별자 상호작용 논리
사적 논리	공적 논리
마음의 교류 논리	이해관계의 교환논리
간주관성의 논리	객관성의 논리
정의 논리	이성의 논리

셋째, 심정은 우리성-정관계에서 상대의 특정한 행동에 함축된 상대의 자신에 대한 마음씀씀이가 자신이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격차(정적 방향이든 부적 방향이든)가 나는 것으로 판단될 때 발생하는 마음의 발동된 상태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심정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여된 두 사람간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이 정도의 마음써주기'는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는 상대와의 상호작용 사건-역사에 대한 반성적(反省的) 회고를 통한 상대와의 관계거리 판단을 통해 설정된다. 따라서 심정이나 심정의 발동에서 관여된 사람들간의 관계사(關係史)는 상대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 중요하게 관여되는 기초 자료가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같은 맥락에서 심정의 토로에서는 반드시 상대와의 관계사가 심정유발행동의 해석에서 '잘됨-잘못됨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깊은 우리성관계를 장기간 맺어왔던 친구가 어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귀어 온 우정으로 보아 내가 거절하다니, 말이나 되느냐"라는 심정토로속에는 두 사람땀 관계사에 비추어 상대가 기대치 이하의 박절한 마음씀씀이에 대한 불만족을 함축한다. 심정토로에는 이러한 역사적 관계맥락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심정토로는 보통 이야기전개방식(story telling)으로 이루어진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넷째는 심정이 갖는 그리고 심정이 감정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심정발동과정 속에 개입되는 자기신세조망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일반적으로 감정은 '자기 밖의 어떤 것'에 대해 일어난다(Harre, 1998 참조). 중요나 사랑, 질투와 같은 감정은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

해 나타나는 감정이다. 심정도 그 발생의 시초는 외적 대상 즉 상대의 행동에 대해 일어난다. 즉 이러한 행동이 상대의 마음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행동이 상대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에 못미칠 때 부정적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심정은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대로부터 자신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대우를 받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비하감이나 자기모멸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암의 상태가 심정의 최종단계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서러운 내신세', '불쌍한 내신세', '가없는 이내신세', '남에게 동정받는 나' 등과 같은 가지 조망적 자기 평가가 부정적 감정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 심정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본인의 심정이 상했던 사례를 준거로 하여 심정이 상하게 된 원인을 당사자들에게 자유응답토록 하여 빈도순으로 그 반응을 범주화한 것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1~3의 범주반응은 '상대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경험'이며, 4~6까지는 범주반응은 자신이 상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의식에서 오는 이차적 부정반응으로 자기비하감이나 자기모멸감에 해당되는 반응이다.

표 2. 심정을 상하게 하는 원인

반응유목	빈도
1. 믿었던 친구였는데 내 믿음이 깨져서	34
2. 내 마음을 몰라준다, 무심하다	18
3.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	17
4. 나를 무시한다, 독선적 태도	33
5. 내 자신이 비참해서	10
6. 내가 해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심하게 대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24
7. 양면적인 행동	5
8. 기타	9
총	150

(손영미, 최상진, 1999)

따라서 심정은 상대의 행위에 의해 직접 발생된 일차적 감정과 더불어 자기의 신세조망에서 발생하는 이차적 감정의 복합체이다. 또한 심정토로양식은 자기신세토로의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심정토로가 흔히 신세타령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심정이 나타나는 형태와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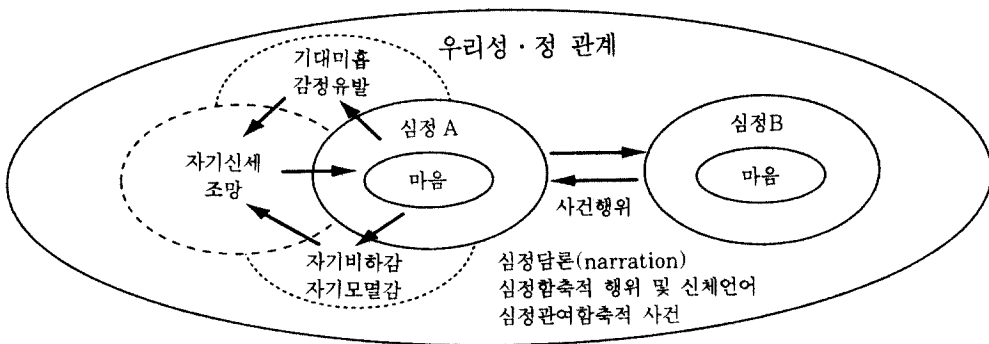


그림 1. 심정 발동의 심리적 과정 및 심정교류

지금까지 위에서는 심정이 우리성-정관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양방적으로 일어난다. 즉 심정은 우리성-정관계속에서 생길 뿐 아니라 이러한 심정은 역환적으로 우리성-정관계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성-정관계에서 부정적 심정이 발생했다고 할 때, 이러한 부정적 심정은 다시 우리성-정관계의 재구성 즉 이 경우에는 평가절하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성-정관계에서는 관계적 역사성이 중요시되며, 이러한 관계적 역사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우리성-정관계는 머리속에서 구성되어지는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같이 동고동락을 했다거나 함께 오래 지냈다거나 하는 등의 사건-역사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기초로 '우리는 정이 들었다' 등과 같은 명제 형태로 우리성-정관계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심정은 관계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망이라기보다는 '지금-현재-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나 상대의 행위에 의해 직접 경험적으로 발기된 감정상태와 이에 뒤따르는 반성적 자기조망형태의 자기신세조망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장적 감정경험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경험(immediate experience)적 성격이 매우 짙다. 반면에, 우리성-정관계 경험은 직접경험적 성격보다는 간접경험(mediated experience)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의 경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있으면서 어느 한 쪽이 없이는 다른 한 쪽이 온전치 못한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경험이다. 예컨대, 심정으로 발현되지 않는 정은 정이 아니며, 심정의 발현이 쌓일 때 정은 두터운 것으로 지각되고 경험된다. 따라서 이 두 형태의 경험이 복합되어 우리성-정관계 인

식을 구성하게 된다. 똑같은 맥락에서 심정 발현의 반성적 인식은 우리성-정관계를 확인하는 단서로도 사용된다. 예컨대, 상대와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행동에 의해 발동된 자신의 심정을 단서로 하여 상대의 자신에 대한 마음쓰기 정도를 확인하고 상대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끝으로, 우리성-정관계에서 외생적 심정발동의 과정과 내생적 심정발동의 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앞의 그림 1에서는 우리성-정관계에 있는 상대에 의해 발생하는 심정발동의 문제를 도식화한 바, 여기서는 시간적 차원의 심정 발생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 마음이나 심정의 마음은 비록 한 순간이나 시점에서 생기고 느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발동된 상태의 정 마음과 정 느낌이 삶의 과정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의 시간흐름속에서 정이나 심정의 마음이 발동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또는 어떤 순간에 정이나 심정이 발동하고 느껴질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의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성-정관계에 있는 상대의 특정한 행동에 의해 정이나 심정이 발동하고 느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상대의 특정한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이나 심정이 발동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상대 행동에 대한 회상이 단서로 작용하거나 상대 또는 과거의 상대 행위에 대한 재해석이나 재구성, 또는 자신과 상대와의 과거 관계사 및 사건사에 대한 재해석이나 재구성이 단서로 작용하여 상대에 대한 정경험이나 심정이 발동하고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심정의 발동에는 반드시 상대의 행위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원인없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심정의 발생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심리내적 심정유발단서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우리성-정관계에서 심정교류의 중요성

앞에서 우리성-정관계는 마음으로 교류되고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심정이 발동된 마음이라면, 마음의 교류 중에서 가장 생생한 교류는 심정의 교류이다. 흔히 심정의 교류는 말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언어적 심정전달단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정의 교류에 언어가 들어갈 때 마음이 아닌 '생각 (thinking and cognition)', '본마음'이 아닌 '꾸민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한자 및 유교문화권에서는 우리성-정관계에서 마음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방식, 즉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교류방식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이심전심의 마음교류에서 심정은 가장 동적이며 생생한 마음교류의 수단이며 매체가 된다. 우리성-정관계에서 어느 한 사람 즉 A의 마음속에 발생한 심정은 상대 즉 B의 마음에 공감되어, 다시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생겨난 B의 A에 대한 심정이 다시 A에게 공감되는 심정교류가 이루어질 때 이심전심의 마음교류가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1999d; Choi & Kim, 1999b).

이심전심의 마음교류가 가장 빈번하고 원활하며 관습화된 집단은 가족집단이다. 한국의 가족구성원들은 특히 부모-자식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를 읽고 자식의 마음을 배려하여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부모의 마음

을 배려하여 하지 못하거나 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서로 상대에게 밖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심정을 주의깊게 읽고 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정교류 양식이 매우 발달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한국의 Home 드라마에서 보면, 외지에 있다 돌아온 자식을 어머니가 상면할 때 서양의 어머니처럼 서로 껴안고 기쁨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정은 사적인 특별한 마음의 감정이므로 은밀히 교류되는 것으로써 그것이 외적인 행동이나 말로 표현될 때 은밀성의 깊이는 알아지기 때문이다. 전철옆 앞에서 일어난 모자간의 심정대화를 예를 들어보자.

비가 오는 날,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맞이 위해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자식이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누가 우산들고 나오라고 했어”하며 화를 낸다. 이에 엄마는 “애야, 엄마가 우산들고 나와서 미안하다”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그 자체는 일종의 자식의 엄마에 대한 불만투사와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의 배면에는 진한 심정의 교류가 깔려있다. 엄마가 자신이 비 맞는 것을 걱정하여 우산들고 기다리는 것을 본 자식이 어찌 엄마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랴. 그러나 자식은 그러한 감사를 고마운 심정으로 표현하지 않고 불만으로 표현했다. 또한 자식의 불만스러운 불만 표현적 말을 들은 엄마가 어찌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러나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로 응답했다. 이 양자는 자신의 심정을 모두 은폐하고 심정과는 정반대로 말함으로써 은밀한 심정관계를



더욱 강하게 체험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부모자식관계 특히 모자관계는 두터운 심정관계이며 이러한 심정관계를 통해 강력한 심정 결속이 구축된다. 여기서 심정 결속이라 함은 서로 상대의 심정이 자신의 심정으로 체험되는 관계로서 상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또는 상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체험되는 일심동체(一心同體) 관계가 이루어짐을 말한다. 이러한 일심동체 관계에서는 심정의 상호의존 관계가 이루어져 심정의 감화와 같은 심정상호작용 관계가 이루어져 어느 한 쪽의 심정이 상대의 심정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한 인질 사범의 예를 보자.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다방의 여종업원을 인질로 하여 결혼을 강요하는 인질극이 과거에 종종 일어났다. 이때마다 그 어머니를 불러 자식에게 마이크를 통해 자수를 호소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이때 어머니가 하는 말은 “000야, 니에미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수해라”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경찰은 부모와 자식간의 심정 bonding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동원하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픈 심정을 자식에게 알린다. 이러한 어머니의 아픈 심정을 인질범이 자신의 아픈 심정으로 공체험할 때 자식은 어머니에게 죄의식을 느끼며 어머니를 위해 자수할 마음을 갖게 된다. 즉 엄마와 자식간의 심정전이(Shimcheong transference)<sup>1)</sup>를 통한 설득방식이다.

그러나 심정교류가 항상 이심전심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자식관계처럼 장기간 함께 생활해 온 사람간에는 심정읽기 단서가 그 강도에서 미약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상대의 심정을 읽을 수 있으나 일반적 동료관계나 친밀 인간관계에서는 이보다는 명확하거나 자극단서가 큰 심정전달통로와 방식을 사용한다. 어른이 사촌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가까운 친구를 만났을 때 손을 꼭 잡아주는 행위,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한숨을 쉬는 행위 등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는 일반적 통로이며 방식이다. 보통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정적 해석은 관계 및 상황의 맥락속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사회에서는 비록 정형화되어있지는 않더라도 묵시적인 형태의 해석의 틀이 매우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한국에서 가장 장기간 방영되는 Home drama인 전원일기라는 연속극에서는 배역들간의 심정교류가 대인상호작용의 중심적 관심거리가 되며, 심정전달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다양성과 미묘함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만일 이 드라마가 심정과 심정체마가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은 서구에서 방영되었다면 한국에서와 같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선거에서는 동정표라는 말이 있다. 동정표는 불쌍한 후보를 동정해서 그를 찍어주는 표를 말한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

1) 효를 강조하는 유학의 오륜 중에서 첫째 덕목인 인(仁)의 단서를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규정하고 있다. 측은지심은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풀이된다(우리말 큰사전, 1994). 이는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 마음속에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스스로 느끼는 ‘피로움, 불행감, 마음고생’ 등이 측은지심을 느끼는 당사자의 마음속에 전이되어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측은지심은 일종의 심정전이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비록 공자가 심정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그 심리적 과정이나 기제면에서 볼 때 인(仁)의 함양은 심정전이 감성의 육성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에서 옥중당선이란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감옥에 들어가면 동정을 받아 당선이 된다는 비유이다. 또한 한국의 투표에서는 한 번 떨어진 사람이 두 번째 출마할 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말한다. 한 번 떨어진 후보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찍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동정표, 옥중당선, 떨어진 경험에 있는 사람 찍어주기 등과 같은 말은 모두 상대의 어려운 심정에 대한 동정심이 한국인에게 강하게 작용하며 동시에 한국인이 심정에 약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동양의 문화권을 흔히 서구인들은 비언어적 문화권으로 규정해왔다. 동양인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의존이 크다고 한다면,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양에서는 마음을 마음으로, 심정을 심정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마음이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동양인의 문화심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들의 생각으로는 심정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관여되며, 심정체마와 심정소통방식이 가장 발달한 민족은 한국인이라고 추측된다. 근대한국문학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시인인 김소월의 시는 자신의 심정을 반어적(反語的)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와 같은 시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 아픈 심정을 반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문학, 한국의 음악, 한국의 연극 등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곤경을 심정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내용과 형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정진, 1990).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심정이다. 심정을 읽으면 한국문화가 보이고 한국인이 읽

힌다(최상진, 1997; 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 한국인의 심정심리적 Discourse 양식

앞에서 한국인에게 심정체마와 심정 communication이 매우 발달되어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심리는 심정 chemistry와 심정 dynamics로 특징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인에게 심정심리적 discourse가 매우 발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한국인의 대인관계가 우리정-정 지향적이고 동시에 우리성-정이 마음 특히 심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곧 관계맺음의 매체인 대인상호작용과 대인 discourse가 심정전달 및 심정반응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심정의 전달은 다양한 양식과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정은 비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심정의 전달과 소통이 모두 비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심정은 불가피하게 언어적 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소통되기도 한다(최상진, 1997; Choi, 1998; Choi & Kim, 1999a). 그러나 심정이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언어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러한 언어의 발화를 유발하는 발화자의 동기 즉 illocutionary function이 더욱 중요한 심정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예컨대, 한국인들은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어디 가느냐'거나 '밥 먹었느냐' 등을 묻는다. 여기서 발화자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 발화의 뒤에 있는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더욱 중요한 전달내용이다.

또한 심정의 전달은 narration이나 disco-

urse의 형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심정논리적 담론양식이 나, 2)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속마음을 자기 보고형 story-telling 형태로 전달하는 양식, 3)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타자적 입장에서 회고적으로 서술하고 해석하는 narration 양식, 4)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진실된 속마음을 사적인 욕구나 감정의 개입 없이 담담한 형태로 진솔하게 밖으로 내보이는 양식 등 심정전달의 방식과 양식은 매우 다양하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참고로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Home 드라마인 '파트너'의 1회분을 78명의 대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심정적 상황이나 대화를 찾아내도록 한 후, 왜 그러한 장면이 심정으로 지각되었는가에 대한 심정탐지단서를 기술하도록 하여 얻어진 반응을 내용에 따라 범주화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포함된 반응 응답수의 크기에 따라 첫 번째 범주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번째 범주는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부끄럽거나 아픈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세 번째 범주는 '아무에게나 말 못할 자신의 담담한 상황을 탁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등으로 나타났다(손영미, 최상진, 1999). 이 결과를 바로 앞에서 언급한 심정전달의 narration이나 discourse의 형태에 따라 관련시켜 보면 첫 번째 응답범주는 2)의 항목에, 두 번째 범주는 3)의 항목에, 세 번째 범주는 4)의 항목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1)의 항목인 심정논리적 담론양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인 대학생들이 심정단서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심정논리적 담론양식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심정담론양식을 스스로의 말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인이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심정탐지의

방식과 양식을 접할 때 이를 심정의 전달이나 심정의 토로로 이해하고 동시에 청자나 담론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청 및 반응태도를 심정 mode로 pre-empting하거나 framing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정의 토로와 담론양식은 사리(事理)의 토로나 담론양식과 크게 다르며, 심정담론과정에 관여되는 마음의 틀(mental set)도 사리담론에 관여되는 마음의 틀과는 현격히 구분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1998; Choi & Kim, 1999a).

한국문화권에서 마음과 심정에 대한 개념구성은 매우 독특하다. 한국인들은 마음과 심정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자연적 발생관'을 마음과 심정에 대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마음과 심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심정 순수관'을 한국인들은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당사자가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한다고 믿는 한 그 마음과 심정의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까지도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갖는 당사자의 책임이나 잘못으로 귀인하지 않는다(최상진, 김기범, 1999c;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1999; Choi & Kim, 1999b; Choi, Kim, & Kim, 1999).

따라서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 심정토로나 심정담론의 양식을 빌어 자신이 속마음으로 느껴진 경험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이러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이 잘못 경험된 것인가를 상대로부터 검토받음으로써 상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술좌석을 만들고 술좌석에서 심정토로와 심정담론을 통해 자신의 또는 상대의 오해나 곡해를 해소하는 방식을 규범시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심정표현에 대한 상대의 불쾌감이나 오해를 막고, 대화의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구성하며, 자신의 의도가 갈등이나 불화보다는 우리성-정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함축하기 위해 자신의 심정토로에 앞서 상대와의 우리성-정관계를 과거의 사건사와 관계사를 통해 재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a; 1999b). 예컨대, 당신과 내가 얼마나 오랜 친구이었거나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심정토로의 서두에 하고 나서 ‘그런데 아쉽게도’로 시작하는 심정토로가 그 후에 수반된다.

한국인들의 심정토로가 긍정적 관계맺음에 매우 효과적인 배경<sup>2)</sup>에는 한국인들의 대인관계적 관계맺음의 양식과도 관계된다. 앞에서 한국인들의 정은 우리성을 맺는 원소재임을 밝힌바 있다. 정의 핵심적 질은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분석적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행위보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경험함을 말한다. 즉 한국인들은 ‘상대를 사고하기’ 보다는 ‘상대를 느낀다’. 이것이 흔히 한국인은 ‘감으로 사람을 사귈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심정은 바로 상대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느낌의 인간관계’와 가장 밀착된 현상이며 개념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discourse는 서로 상대의 심정을 느끼며 서로 상대의 심정을 배려하는 심정감응적 discourse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정감응적 discourse가

우리성과 정을 확인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심정에 대한 narration이나 심정토로가 관계의 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심정을 상대나 제 3자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어려움이나 입장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는 동기가 우세하게 관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적 심정을 일으킨 상대가 아닌 제 3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형태의 심정토로를 보통 ‘하소연’이라고 부른다. 하소연은 정신분석학에서의 catharsis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에 덧붙여 catharsis와 다른 점은 제 3자로부터 자신의 이러한 감정과 심정과정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기능을 포함한다(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1999b).

요약하면, 이러한 심정 discourse의 관계 심리적 함의 및 그 기능은 ‘우리성-우리편 정관계’의 확인과 ‘사적’ 마음이 서로 통(intersubjectivity의 형성)하며, 당사자적(제3자적이 아닌) 진실성 마음의 관여관계임을 확증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구성과 사건이 연계된 감정이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갖고 그 기능을 갖는 것은 심정 discourse가 ‘머리’로 하는 말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말이고, 상대를 특별히 아껴주고 마음써주는 말 즉 ‘우리편 정언어’의 형태를 띠며, ‘상대의 주관화’, ‘무거리화’, ‘탈경계화’, ‘하나됨’의 언어적 특성을 갖기

2) 한국 서민들의 전통적인 놀이 속에 가면극이란 연극의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가면극은 얼굴에 계층을 함축하는 탈을 쓰고 필박받는 서민들이 권세 층의 양반이나 관료들을 굴탕먹이는 plot으로 구성되며 그 형태는 해학과 풍자로 구성된다. 이 극의 핵심은 서민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 하면서 양반과 관료를 조롱하는 데 있다. 양반과 관료가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사회상황에서 이러한 연극이 허용되고 양반과 관료가 이 연극의 관객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것은 심정의 표현과 토로가 건설적인 재화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양반 및 관료계급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그리고 제 3자적 입장에서의 객관 논리적 현상 기술/분석이 아닌 당사자적 입장에서의 심리내적 마음경험표현의 말이기 때문이다.

### 맺는말

지금까지 앞에서 한국인의 심정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며, 인간관계 특히 우리성-정관계에서 심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밝히고, 한국인의 심정 Discourse의 양식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를 논하였다. 한국인의 역사-문화적 삶 속에서 심정이라는 현상과 개념은 구성되고 실체화한 실재계(實在界)로서 한국인의 일상적 사회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현실적으로 생성한 작용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현상학적 심리경험계이다.

심정은 행위를 포함한 구체적 대상은 물론 명제형태의 인지적 구성체에 대한 자기관여적 지향관계가 관여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상태의 마음의 발기와 더불어 일어난 마음의 의식과정과 내용을 대상화하여 story-telling 형식의 경험으로 구성되는 사적인 경험체계를 일컫는 개념이다. 심정에는 이처럼 자신의 심리내적 경험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형태의 인지적 귀결과 해석이 필수적으로 관여된다는 점에서 심리에 대한 문화적 구성 및 해석방식이 심정의 구성에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며, 따라서 생물학적 생존기제와 결부된 원초적 감정과는 그 경험의 질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인들은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심정에 대해 상대의 자신에 대한 심정은 물론 상대에 대해 발기된 자신의 심정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경험하고 대처 내지 반응할 뿐 아니라, 발기된 심정의 질과 내용을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한국인의 대인관계 지향은 우리성-

정관계의 형성과 강화에 있으며, 우리성-정관계의 형성징표와 수단은 관여된 당사자들간에서 상대에 의해 유발된 긍정적 질의 심정을 스스로 체험하고 또한 상대가 체험하는 긍정적 질의 심정을 서로 공체험(共體驗)하고 공확인하는 심정의 산경험(live experience)이다. 따라서 서로 상대에 대한 긍정적 질의 심정이 상호전이되는 과정이 의도성의 개입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자체험(自體驗)이 스스로 확인될 때 한국인들은 심정이 통하는 친구라 말하고 심정이 통하는 친구는 상대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일심동체(一心同體)의 우리성-정관계가 된다.

심정의 구성과 기술에 관여되는 심정문법체계와 심정문법에 들어가는 심정문장(심정narration)의 구성요소는 한국인의 역사-문화적 삶 속에서 현재적 사실로 진화되어 온 심리의 언어체계이며 직접경험적 현실체계이다. 그러나 문화가 모든 심리과정과 심리체계를 구체적 현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규정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심정의 구성요소와 구성체계도 문화적으로 자명하게 명세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동일한 심정체험의 장에서도 구성되고 귀결되는 심정의 질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더구나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관계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심정을 경험하고 구성하는 과정에는 심정사건에 대한 해석과 심정구성방식에서 개별적 특수성과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심정현상은 사회-문화적 제약속에서 개별적 특수성을 갖는다.

심정은 외국인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한국인에게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심리적 경험이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양에서의 empathy, sympathy, confession와 같은 현상은 심정을 함축적으로 내포한다. 한국인에게 심정이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한국인이 심정을

민감하게 경험하고 심정의 경험과 심정의 기초한 반응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둘째는 한국인은 대인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현상 또는 사건들을 심정이라는 현상이나 개념들 속에서 조망하거나 해석하거나 심정의 동질적인 또는 심정자체로 지각하는 성향과 강도가 크다는 점, 셋째는 심정심리적 설명양식 즉 심정심리과정의 인지적 구성양식과 심리심리와 심정감정의 연계방식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심리에 독특한 문법 및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심정의 communication 방식 즉 심정토로나 심정 discourse양식이 한국인에게 독특하게 발달되고 정교화 되어있다는 점등에서 한국인의 심정은 독특할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

한국인의 심정이 한국의 문화적 현상이란 점에서 한국인의 심정은 사회속에 실재하며 살아 움직이는 현상이다. 사제관계에서, 부하와 상사간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법정에서까지도 심정심리와 심정논리는 편재화 되어있으며, 적어도 한국인들은 심정 narration이나 심정담론의 상황적 적합성은 문제삼을지언정 심정 그 자체와 심정토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심정은 순수한 인간의 마음으로 여기며, 따라서 심정의 토로는 진실된 마음의 표현인 동시에 심정토로의 당사자에게는 진실(authentic)하며 긴절(exigent)한 마음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이 지향하는 우리성-정관계에서는 심정적 discourse양식이 긴밀한 관계성을 함축하며 확인하는 단서가 되며 또한 긴밀한 우리성-정관계를 회구하는 동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심정 양식의 discourse가 폭넓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정 discourse가 발달되었다 함은 곧 심정적 사고와 감정이 발달되었음을 함축하며, 따라서 한국인의 예술, 음악, 문학의

영역에까지도 심정은 한국인의 심리적 주음계로서 자리잡고 있다.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단어는 심정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민수, 홍용선(편)(1974). **신국어대사전**. 서울: 어문각.
- 박정진(1990). **한국문화 심정문화**. 서울: 미래문화사.
- 손영미, 최상진(1999). 한국인의 심정적 대화상황분석을 통한 심정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1993).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김기범(1999b).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 김기범(1999c).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 김기범 (1999d). 한국문화적 심리치료접근으로서의 심정치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1999). 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표현행위 및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최상진, 김정운(1998).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79-96.
- 최상진, 박수현(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9-78.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 5(1), 중앙대학교, 107-132.
- 최상진, 유승엽(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77-388.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1), 219-233.
- 최상진, 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9.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Kim, C-W. (1997).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erlin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oretical Psychology, 27 April - 2 May*.
- Choi, S. C., & Kim, K. (1999a). The Shimcheong (心情)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2nd World Congress of the 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 Vienna, July 4-8, Austria*.
- Choi, S. C., & Kim, K. (1999b).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Choi, S. C., & Kim, J-Y, & Kim, K. (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Gergen, K. J. (1997). *Realities and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re, R. (1998). Emotion across cultures. *Innovation*, 11(1), 43-52.

1 차 접수: 1999년 9월 17일  
최종원고 접수: 1999년 12월 3일

## **A Psychological Analysis of Korean Shimcheong (心情: Activated Inner Mind): Its Nature, Activation, Psycho-social Significance, and Discursive Practices**

**Sang-Chin Choi, Kibu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himcheong is a phenomenological reality for Koreans which plays vital roles in communications and interactions in everyday real lives. Shimcheong is different from primitive emotions which are rooted in biology and evolved according to survival mechanisms. Shimcheong is a cultural concept related with cognitive judgments and interpretations for psychological inner experiences. Koreans react very sensitively to other's Shimcheong as well as their own, and consider those contents of Shimcheong very important to define relationships. One of the major functions of maintaining relationships for Koreans is to develop and reinforce we-ness. Development and reinforcement of we-ness are achieved through Shimcheong communications. When Shimcheong communication is spontaneous, the parties feel their minds meeting each other and the relationship is greatly improved. Shimcheong as a Korean concept is unique in the following sense. First, Koreans are exclusively sensitive to Shimcheong phenomena and consider them very important for relationships. Secondly, Koreans define, understand, and make judgments of relationships in terms of the contents of Shimcheong, and thus have developed particular sets of communicative grammar and frameworks based on Shimcheong. Shimcheong is real and live in Korean culture and society. The development of discourses based on Shimcheong means accompanying developments of the modes of thinking and feeling based on Shimcheong. Therefore, Shimcheong is the keynotes for Korean arts, music and literature. The most important keyword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is Shimcheong.